

문 대통령 “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에 총력”

국토부·해수부 업무보고서

“민생·경제 고삐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 강조
국토부 “경제 거점 조성·교통 SOC 투자 확대로 활력 제고”
해수부, 해운 재건·어촌 경제 활력 제고 등 3대 과제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2개 부처 장관으로부터 올해 정책 방향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신년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이번이 5번째이자, 지난 17일 경제부처 업무보고 이후 10일 만이다.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토·해수부 업무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해 경제 활력을 변함없이 끌어올린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 가능성을 최소화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갖는 것은 비상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렷하게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취지를 직접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핵심은 경제 활력”이라며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부처별 세부 정책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경제 거점 육성, 일자리 창출, 해운 재건 등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토·해양정책을 국토부와 해수부로부터 보고받았다.

국토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주제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목표 8대 전략’과 서민 주거 안정과 출퇴근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2대 민생 현안’을 발표했다.

뉴딜사업, 노후 산단 대개조 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 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GTX, 신공항 건설 등 교통 SOC 투자를 대폭 확대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 14조8000억원의 선제적인 SOC 투자를 통해서 약 12만개 이상의 일자리 만들었다”며 “올해도 대규모 핵심 SOC를 중심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보고했다.

또 “GTX, 신공항 건설 등 교통 SOC 건설에 14조 원을 투입하고, 생활SOC와 노후 SOC 안전에 총 10조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SOC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전남 신안 천사대교 현장 연결을 통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21만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택 공급 수준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를 통한 출퇴근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해수부는 ▲해운 재건 ▲연안·어촌의 경제 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 성장 견인 등 3가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해운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2만4000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신규 투입 등 해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어촌뉴딜 사업을 19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국형 스마트항만 도입 등 해양수산 스마트화 3대 선도 프로젝트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김수현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석 인원은 90명으로 최소화하는 대신 국토·해양 현장을 실시간 영상으로 연결해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사례를 들어보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먼저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개통, 1004개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 천사대교 현장을 연결했다. 마을 주민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대교 건설 이후 어떻게 삶이 변화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해수부는 부산 신항에 임항한 컨테이너선박의 선장을 연결했다.

부처 보고에 이어 경제활력 제고라는 공통 과제 달성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뚫은 경험에 있는 전문가들의 제언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경일 천안시 도시재생과장,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

토·해수부의 사업은 인프라·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몇 년 후 나타난다.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실행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라도 가급적 시행을 최대한 앞당겨서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 살리기에 두 부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생각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남은 10개 부처의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서면보고로 진행한다. 윤 부대변인은 ‘업무보고 내용은 부처별로 별도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

최명철 전주시의원
민주평화당 탈당



민주평화당 소속 최명철 전주시의원이 탈당과 함께 4·15 총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예비후보를 돕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전주시 보궐선거에서 도와주시 민주당 정동영 대표, 조배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원에게 송구스럽다”고 머리를 숙인 후 “전북 경제를 살리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탈당과 함께 민주당 이상직 예비후보를 지원하는데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4년 당시 이상직 국회의원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받고 나선한 경험이 있다”며 “이상직 예비후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에 의리를 찾아 왔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민주평화당으로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혼자서 꿈을 펼치기에 한계를 느껴 탈당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전주 경제를 책임질 이상직 예비후보와 함께 전주를 지역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심어 시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 의원의 부당은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작년 국회의원 후원금 총 354억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약 354억 원의 후원액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 295명(이우현, 이완영, 최경환, 황영철, 엄용수 등 의원직 상실 5명 제외)의 2019년 총 354억 1764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발표했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2005만 원이었다. /뉴스

4·15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저모

신영대 “불명예스러운 군산경제 위기 청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예비후보(군산)가 단수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공식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신 예비후보를 군산시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 발표했다.



신영대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재창출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라고 군산시민들께서 주신 임명장”이라며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군산경제 회생을 위하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중앙공공기관 군산유치를 기필코 현실화 시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신 예비후보는 “인구 마지노선인 27만도 무너졌고, 경제위기, 일자리위기, 인구유출위기로 불명예스러운 위기 3관왕이 군산의 현실”이라며 “잃어버린 군산 8년의 과거적 패를 청산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신영대가 군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당당하게 승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19에 대해 정부의 정책과 지침을 지지해 주시고 따라주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현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김수현 “경선 승리… 익산시민 뜻 받들 것”

더불어민주당 김수현 예비후보(익산)가 익산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본선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김 예비후보는 27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이번 경선의 결과에 대해 “위대한 익산시민들께서 부족한 저 김수현을 선택해 주셨다”며 “이는 김수현의 승리가 아니라 익산시민의 승리라고 새로운 익산의 미래와 역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제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초석을 만드는 중요한 선거”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4·15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김수현 후보는 “지난 경선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이야기 된 익산의 인구감소 해결 등을 위해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는 등 익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6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총선 후보공천을 위한 공천 결과로 익산 갑에 김수현 후보가 이춘석 현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특별취재반

이춘석 “시민의 선택, 깨끗이 승복할 것”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춘석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성원해주고 격려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면서 “최선을 다했기에, 그것이 어느 쪽이든 익산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기에,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 힘이 돼 주셨기에 지난 12년간 험난한 정치여정을 깨끗이 헤쳐 나올 수 있었다”며 “꼭직접 성과들이 나올 때면 누구보다 시민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세상은 다 얻은 듯 뿌듯했다”고 회고했다.

또 “여러분께서는 제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마다 언제나 든든하고 따뜻한 힘이 돼 주셨기에 저 또한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고자 했으나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더 나은 익산을 향한 많은 분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고상진, “정책 바탕 정당당당 경쟁” 다짐

대안신당 고상진 예비후보(익산갑)가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한 정당당당한 경쟁을 다짐하고 나섰다.



고상진 예비후보는 27일 익산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며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된 선거, 조직 선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현재도 일부 후보자들이 당선을 위하여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며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신인으로 공식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법적인 후원금이나 정치자금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법정선거비용 이외의 지출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며 “이러한 선거풍토를 정착시켜 20~30대 젊은이도 현실정치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2년 동안의 유정업 의원 보좌진 경력의 앞세운 고 예비후보는 “다수 상임위원회를 경험하며 국정 전반에 관한 안목을 넓힐 수 있었다”며 “국회의원은 어떠한 하하는가에 관한 나름의 철학을 정리할 수 있게 됐다”고 피력했다.

/특별취재반

조배숙 “만경강 국가정원 조성할 것”

민주평화당 조배숙 예비후보(익산)가 만경강 국가정원 조성을 통한 1000만 익산 관광시대 비전을 제시했다.



조배숙 예비후보는 27만경강 수변에 펼쳐진 아름답고 광활한 습지는 생태문화관광지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며 이를 활용한 국가정원 조성 필요성을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역설했다.

조 예비후보는 “만경강의 환경, 생태자원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책로 조성 등 기존의 지역적인 자원을 넘어 관광콘텐츠와 인프라를 종합한 국가정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만 국가정원은 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의 대표습지이자 철새도래지인 만경강의 가치가 결코 순천만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GTX 익산역을 통해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된 점을 감안하면 순천만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1천만 익산 관광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박희승 “공공의대 설립은 국가적 사안”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예비후보(남원·임실·순창)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무산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안(공공의대 법률안)이 지역구 의원의 발그릇 쟁기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우려를 표시하며, 남원국립공공의대 설립은 법국가적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최근 보도와 관련, “코로나19로 중증대환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시점에 감염병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지역구 발그릇 쟁기기로 변질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대설립은 감염병 뿐만 아니라 중증외상 치료 및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등 대국민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국가적 중요 사안”이라며,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리산권역과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이강래, 운봉 종축장 부지 활용 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예비후보(남원·임실·순창)는 지난해 11월 경남 함양으로 이전한 운봉을 가축유전자원센터의 부지(66만평규모)를 활용하는 국립치유농업원과 말테마공원인 렛츠런 파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업부문 새로운 트렌드를 관광농업에서 치유농업으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는 치유농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마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재할승마원과 렛츠런 파크를 조성해 호남권 마필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국가단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당중진의 힘이아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안호영 “주민·당원 지지 모아 본선서 꼭 승리”

경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후보로 확정된 안호영 예비후보는 “완주·진안·무주·장수군민과 당원의 지지를 하나로 모아 4월 15일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달 말 예비후보 등록과 공식 출마선언 이후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경선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인물과 정책, 그리고 본선 경쟁력을 우선으로 생각한 주민과 당원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선 승리는 끝이 아닌 또다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준 유희태 후보, 그리고 지지 당원들과 원팀이 되어야만 본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며 “더 겸손하고 주민 마음을 경청하는 자세로, 4월 15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후보는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정권 재창출, 그리고 ‘전북 대도약’과 ‘더 잘사는 완주’ 건설에 중심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별취재반